

주간 증시 포커스

대북 관련주 변동성 확대

北 핵심장 폐기 여부 변수

증권·기계·반도체 관심 필요

미국 국제금리 상승으로 달러강세가 이어지며 신중국 증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내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대북관련주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고위급회담을 취소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기대를 모았던 북미정상회담도 주도권 싸움 야상을 보이며 일회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양국 모두 예측하기 어려운 지도자들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적이슈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속에서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재선도전이라는 변수가 있어 상호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주도권 싸움은 있겠지만 큰 방향성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22일 한미정상과 22~23일 예정된 핵심장 폐기 실행여부가 대북관련주에 큰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장 시작 전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의 정기 변경이 발표됐다. 지난해부터 예견됐듯 MSCI이머징 지수에 중국 A주에서 234종목이 해당 유동 시가총액의 2.5%비율을 부분편입됐다.

또 한국도 에이치엘비, 바이로메드, 삼성엔지니어링, 펄어비스, 셀트리온제약 등 코스닥 제약바이오종목을 중심으로 5개종목이 편입되고 한화에너지(구 한화테크윈), 현대위아, SK네트웍스 등 3개종목이 편입됐다.

이번 발표로 MSCI이머징지수 내 중국 비중은 29.66% → 31.03%로 증가했고 한국 비중은 15.41% → 15.06%로 감소했다.

중국 A주 및 기존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한국 비중이 감소하면서 외국인 국내에서 5000억~1조 정도가 중국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외국인투자비중을 감안할 때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외국인 수급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주중 북한관련 뉴스와 달러강세 및 금리상승에 따른 외국인 수급의 변화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주는 시장에 강한 영향을 줄만한 경제 지표는 없지만 오는 23일 발표되는 4월 중국인 입국자 통계는 중국소비관련주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전년 대비 2분기 실적개선이 예상되는 증권 은행 기계 반도체업종도 관심이 필요하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복날·월드컵 앞두고도 양계농가 '울상'

AI 파동 이후 정상화 불구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세 도축 마릿수 6월 전년보다 4%, 7월 5.1% 증가 전망

나주지역 양계농가 김모(68)씨는 여름철 '복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다. 조류인플루엔자(AI)라는 큰 흉역을 치르고 이제야 회복세에 접어드는 듯 싶었는데, 육계와 토종닭이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곧 복날도 찾아오고 월드컵도 열리니까 한달 뒤에는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다"며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오랜만에 찾

아온 특수를 노리기도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AI 파동 이후 육계·토종닭 업계가 가까스로 정상화에 접어들고 있지만 사육 마릿수가 급증하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름철 '특수'를 앞두고도 울상을 짓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4년 만에 '2018 러시아 월드컵'이라는 빅이벤트가 찾아왔음에도 여전히 닭고기의 가격하락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축산

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6월 도축하는 닭의 마릿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증가한 9207만 마리로 예상된다. 닭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오는 7월에는 1억815만 마리로 전년에 비해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6~7월 육계 산지가격도 전년보다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6~7월 육계 산지가격은 닭고기 공급 증가로 1kg당 1200~14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6~7월 가격

1649원에 비해 15.1~27.2%상당 떨어진 것이다.

산지가격 하락으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 소매가격도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aT의 농수산물가격정보를 살펴본 결과 지난 18일 거래된 닭고기 소매가격은 1kg 기준 475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46원에 비해 22.84% 하락했다. 이는 평년 5559원보다도 16.81% 낮은 가격이다. 여기에 하루가 다르게 닭고기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양계농가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처럼 닭고기 가격이 하락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6년 말 AI가 발생한 이후

산지 닭값이 호조를 보이면서 농가들의 병아리 입식이 증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병아리 사육이 급증하면서 생산량이 증가, 이는 곧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역 축산업계 관계자는 "오는 6월 월드컵과 7월 초복이라는 대형 특수를 앞두고 닭고기 생산량이 많아 가격하락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가뜩이나 보양식으로 닭보다 전복 등 해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닭고기 소비가 위축돼 기대감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소외계층 4개 농가에 희망나눔 송아지 기증

농협전남본부·나눔축산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와 나눔축산운동본부, 곡성축산농협(조합장 박영규)은 20일 곡성 한우경매시장에서 '2018 희망나눔 송아지 기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과거 축산업 경험이 있는 곡성지역 55세 이하 소외계층 가운데 축협 이사회에서 추천한 4개 농가가 우량 암송아지 1마리씩을 지원받았다. 전남농협

은 이들이 다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규 곡성축협 조합장은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축협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희망나눔 송아지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지원하는 사회공헌 실천운동이다. /박기용기자 pboxer@



광산구 봉정마을 주거개선 봉사활동

농협광주본부·평동농협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와 평동농협(조합장 김익찬)은 지난 18일 광주시 광산구 봉정마을 송모(여·76)씨 가정을 찾아가 주거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홀로 거주하는 송씨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지인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갈라진 벽을 보강하고 오래된 벽지의 장판을 교체했다.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행복콜센터'는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고통을 접수받아 지역 봉사단체와 연계한 각종 생활불편 해소, 위기 발생시 112·119 등 긴급출동 요청 등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다.

한편, 도움이 필요하거나 봉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행복콜센터 대표번호(1522-5000번)로 상담·참여가 가능하다. /박기용기자 pboxer@

본격 영농철... 농기계 사용법 잘 숙지하고 사용하세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20일 농업기계를 통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올바른 기계 점검 등을 당부했다.

이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통계에서 농업기계를 통한 치사율이 전

체 사고의 치사율보다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손상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농기계는 경운기(49.7%)가 가장 많았고, 이어 예취기(17.2%), 트랙터(11.3%), 관리기(3.4%) 순이었다.

농업기계를 통한 농업인 안전사고는 ▲농작업 중(46.7%) ▲농작업 관련 이동 중(25.2%) ▲농작업 준비 중(12.2%)에

주로 발생했다.

농작업 안전사고는 운전자 부주의(87.8%)와 기계 고장(60.0%)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환경적으로는 급경사(32.7%)와 좁은 도로(30.6%)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를 통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기계 사용법 숙지와 올바른 점검 ▲작업에 따라 적절한 보호장비 착용 ▲농작업 환경 개선과 위험지역 사전 확인 ▲안전운전 등 상황별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농촌진흥청을 설

명했다.

작업 시작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뒤 작업 후에도 정리운동을 해 몸을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가능한 작업 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외 농업기계 안전이용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업정보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수산식품 수출전문가

중기 과정 교육생 모집

aT 농식품유통교육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유병렬)은 농수산식품 수출전문가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글로벌 농식품 수출 환경에 대응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농식품 수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설된 중기 교육과정이다.

오는 24일부터 6월30일까지 6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1시~7시까지 교육이 진행되며, 마지막 주인 6월25일~30일까지는 해외연수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과정은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무역실무, 해외시장 진출전략, 글로벌 통상 트렌드 등 실무지식을 배울 수 있다. 교육 마지막 주 말레이시아식품박람회 한국관으로 직접 참가해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보는 실습과정이 포함돼 있어 실전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육비와 박람회 참가연수를 지원하는 과정으로 자부담 105만원으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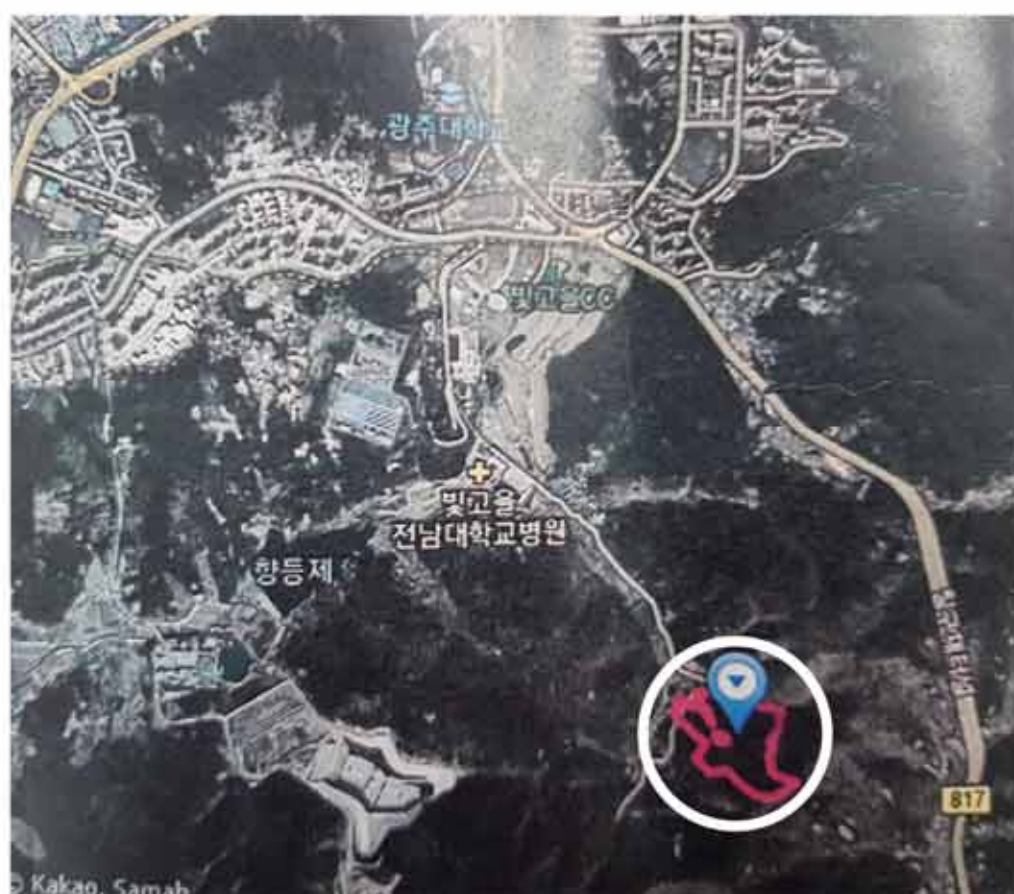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aT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66주년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70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최고 투자물건 입니다※